

경제마인드로 재무장 하자

6 지자체 기업유치 내실있나

1분기 쇠고기 수입 40% 증가

MOU부터 실투자까지 직접 관리해야

〈투자양해각서〉

기업 및 자본 유치는 각 지자체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외지 자본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는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투자양해각서(MOU) 체결할 때만 요란할 뿐 실제 유치실적으로 연결되는 '실속형 기업유치'는 그리 많지 않다. 지역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프라 미흡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유치에 나서는 지자체와 소속원들의 마인드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은 지난 2003년 이후 기업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 등에서

광주 협약체결 후 관리 안돼 절반 이상이 포기 지자체·시민 힘 합쳐 친기업 정서 정착시켜야

있더라 MOU를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MOU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는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3개 국내외 업체와 MOU를 체결했지만 이 가운데 44.1%인 63개 업체만 광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광주업체에 자본을 투자했다. 전남도는 더 형편없다. 지난 2003

년부터 3년간 61건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가운데 23%인 14개 업체만 실제 유치로 이어지는 등 낮은 성사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성사율이 낮은 것은 전신적 계약 실적이 급급한 나머지 유치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따지지 않고 MOU 체결에 주력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자체는

물론, 기업과 시민 등 지역경제 전 구성원이 힘을 합해야 한다. 구성원 모두가 투자기업이 지역에서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힘을 실어주는 한편 건전한 노사문화 및 친기업 정서를 정착시키는 데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투자유치가 성사된 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 지자체나 담당 공무원들의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식의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은 관료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경제 마인드로 유치에서 관리까지 철저히 서비스해줘야 한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로 옮겨온 국내기업 가운데 일부

업체는 광주로 옮긴 뒤 부도로 파산하거나 수도권 제이전을 고려, 이 지역의 사후관리 부실을 반증해 주고 있다. 금융·행정서비스 지원 등 지역 내 기업활동에 한치의 어려움도 없도록 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지원이 절실함은 최근 광주시가 76개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광주의 투자환경 약점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전체의 41.7%가 '수출지원 부족'을 꼽았으며, '금융서비스제공 미흡'(24.3%), '인센티브지원 미흡'(12.6%)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투자 실현까지 보통 1~3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실제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MOU를 체결하고도 투자를 미루고 있는 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 공무원들은 물론 기업과 지역민들이 철저한 경제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호주산 쇠고기...국내 축산물 적자 덩달아 늘어

올해 1~3월에만 쇠고기 수입이 40% 이상 늘어났다. 지난달 재상륙에 성공한 미국산 쇠고기까지 본격 수입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3월 농수산물유통공사(아T) 농수산물무역정보(Kat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4분기에 모두 6만2천481t, 2억6천701만달러어치 쇠고기를 수입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5만8천59t, 1억8천712만달러에 비해 각각 22.9%, 42.7% 늘어난 규모다. 나라별로는 호주산이 작년 동기보다 각각 29.1%, 48.3% 증가한 4만6천24t, 2억315만달러어치 들어왔다. 2대 수입국인 뉴질랜드산도 1만4천834t, 5천773만달러어치 수입돼 각각 각각 13.4%, 32.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3위 멕시코산은 1천516t, 591만달러로 오히려 28.0%, 7.6% 줄었다. 같은 기간 돼지고기 수입량과 수입

액도 각각 9만2천230t, 2억3천913만달러로 지난해 1~4분기보다 21.9%, 42.0% 늘었다. 상대국별 수입액은 ▲미국 6천230만달러 ▲캐나다 2천913만달러 ▲칠레 2천374만달러 ▲프랑스 2천87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쇠고기·돼지고기 수입이 크게 늘어난 데 따라 1~4분기 육류·낙농품 등 전체 축산물의 무역수지 적자규모도 7억6천56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5억6천372만달러보다 36% 늘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한우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예상되면서 위축됐던 호주산 등의 수입이 미국산 쇠고기 개방 지연과 함께 올해 초 풀렸을 가능성이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 고 쇠고기 대체품으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수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국내 소비자 절반이상 "미국산 쇠고기 구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미국산 쇠고기와 농산물이 수입되면 구입하겠다는 소비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비자 10명 중 6명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제품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소비생활에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순영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연구팀장은 3일 '한미 FTA와 소비자 정책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러한 설문조사 내용을 담은 '한미

FTA에 대한 소비자 의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인 이노인포에서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4월19일부터 20일까지 전화로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상품의 구매의향을 살펴본 결과 수입산 쇠고기와 관련해 '적극 구입' 1.4%, '구입' 54.4% 등 긍정적인 사를 보인 소비자는 전체의 55.8%였고, '구입하지 않음' 36.4%, '절대 구입안함' 7.8% 등 부정적으로 응답한 이가 전체의 44.2%였다. <연합뉴스>

남악신도시 개발지구 상업용지 분양

전남개발공사 7만4천478㎡ 남악신도시 개발지구 상업용지 분양 30필지 7만4천478㎡(2만 2천529평)를 오는 10일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 대상은 중심 상업용지 5필지 5천893㎡(1천783평)·일반 상업용지 2필지 1천469㎡(444평)·근린생활 시설용지 11필지 3천426㎡(1천360평)·주상복합용지 8필지 5만 8천880㎡(1만 7천811평)·주차장용지 4필지 4천810㎡(1천455평)다. 상업용지의 경우 공급면적은 575.0㎡(173.9평)~1천287.0㎡(389.3평)

이다. 공급예정가격은 6억6천100만원~15억 9천600만원으로 필지별 평균 평당 단가는 385만원이다.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면적은 294.7㎡(89.1평)~345.0㎡(104.4평)로 공급예정가격은 2억4천400만원~3억4천600만원이며 필지별 평균 평당 단가는 301만2천원이다. 주상복합용지 공급면적은 5천089.5㎡(1,539.6)~1만 1천518.8㎡(349.4평)로 공급예정가격은 40억7천100만원~92억1천500만원이며 필지별 평균 평당 단가는 259만8천원 등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농촌사랑! 양파 직거래 장터 '농촌사랑! 조생양파 직거래장터'가 3~4일 이틀간 광주 남구청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김수공 농협전남본부 부부부장(맨 오른쪽), 황일봉 남구청장(오른쪽 두번째) 등 양 기관 임직원들이 나서 고객들에게 햇양파를 판매하고 있다. 직거래장터에서는 양파, 멜론, 참외 등 10여가지 우수농산물을 시종보다 10~30% 싸게 판매한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식품유통기한 표시기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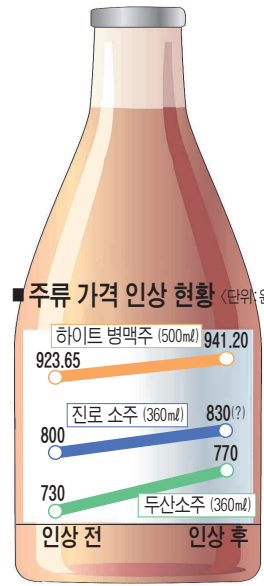
앞으로 식품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알려주는 식품 표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모두 포장지의 앞면에 제품명과 함께 표시하고, 글자 크기도 10포인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을 상반기 중에 입안예고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유통기한 표시는 원료 성분과 함께 병기되거나 별도의 장소에 표시하도록 돼 있고, 그 크기도 작아서(7포인트 이상) 소비자 입장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돼 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주당들 큰일 났군...

소주·맥주값 줄줄이 인상

도시가스, 대중교통요금, 휘발유값 등에 이어 소주·맥주값이 줄줄이 올라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 1위인 하이트맥주는 이날부터 모든 자사브랜드 맥주 출고가를 1.9%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하이트 병맥주(500ml) 값은 출고가 기준 923.65원에서 941.20원으로 올랐다. 같은 용량의 흑맥주 '스타우트'는 1천34.75원→1천54.41원, 330ml짜리 '엑스필'도 767.42원→782.00원으로 뛰었다. 일반 소매점에서는 병당 50원 가량 오른 셈이다. 하이트맥주가 출고가격을 올리면서 시장점유율 2위인 OB 맥주도 조만간 출고가격을 올릴 예정이다. '서민의 술'인 소주도 들쭉거리고 있다. 소주업계 1위인 진로는



병당 800원(360ml)인 출고가를 30원 가량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진로 관계자는 "3년 동안 소주값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원료값이 많이 올라 가격인상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스요금도 이날부터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앞서 휘발유값은 올레 2월 둘째 주 이후 11주 연속 상승해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종태기자 jilee@>

Advertisement for TEMPIA air conditioning units. Headline: '쓸수록 돈 버는 냉·난방기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Features: '600평 공장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 기술'. Includes a graph showing energy savings: '1/3로 줄었다' (reduced by 1/3). Lists benefits like '한정수량 예약판매 무상 지원금 혜택' (limited quantity advance sale, free support fund benefit) and '46만원~200만원까지 무상지원' (free support of 460,000~200,000 won). Contact: 062)959-4222, 080-701-7117.

Advertisement for GwangShin Apartment. Headline: '새로운 품격의 프리미엄이 선보입니다'. Features: '광신 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Includes a map showing the location in Dongnam-gu, Gwangju. Contact: 분양문의 945-8600. Opening date: 5월 16일 (May 16th).